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됐다

전남도 내 5번째...23일 선포식 아동권리 실현 4개년 계획 추진

나주시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사회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오는 23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한다.

나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 5번째로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4년간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요소 달성과 4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첫 발을 뒀다.

이후 ▲아동친화 전담조직 및 실무 추진단 구성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초·중·고 아동 참여단 구성 ▲아동권리대변인



강인규 나주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주시 제공>

(옵브즈퍼슨) 위촉 ▲슬로건 공모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도시 인증에 필요한 기반 여건을 갖춰 올해 3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시는 인증 획득에 따라 '아이랑 함께 꿈꿔요, 나 주랑 함께 키워요'를 비전으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2021~2024) 계획'에 본격 착수한다.

4개년 계획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대 중점과제에 아동의 눈높이에 맞

는 교육·놀이·복지 분야 3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성과는 아동의 행복 권리 실현을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구충곤 화순군수와 문경래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은 지난 16일 화순군청에서 화순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달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호남권역재활병원 상호협력 감사패

의료봉사 등 상호 우호관계 지속

화순군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최근 상호협력 관계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주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문경래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은 지난 16일 화순군을 방문해 공직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상 공무원은 조형재 총무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박용희 가정활력과장, 김인아 보건소장, 이영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의료봉사 지원과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병원 환자들을 위한 '2021 국향&목향 특별전시회' 개최 등에 기여했다.

이에 앞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화순8경 홍보 등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한 문경래 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경래 병원장은 "화순군에 의료 봉사를 갈 때마다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매년 감사함을 느꼈다"며 "화순군과 인연이 계속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매년 의료 봉사 활동으로 화순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경래 병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화순군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지난 2019년 주민주강증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천관농협, 코로나 방역 물품 지원 장흥 천관농협(조합장 김외중)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대덕, 회진 등 45개 영농회에 자동손소독및발열체크기 45대와 방역마스크 2만장(시가 1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엘로우시티 장성 인생맛집 추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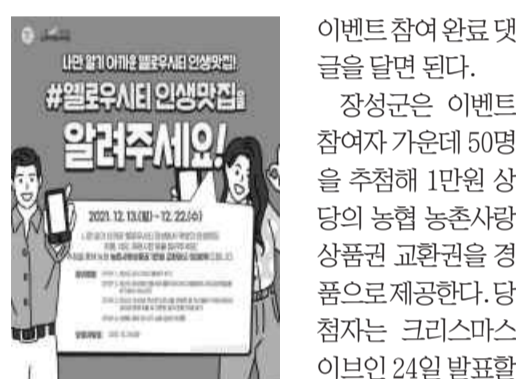
장성군, 22일까지 SNS 인증 행사

"나 혼자만 알고 있거늘 아까운 엘로우시티 장성의 인생맛집 추천해주세요."

장성군이 '나만 알기 아까운 엘로우시티 장성 인생맛집'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SNS 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벤트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지역 내 카페, 식당, 전통시장 등을 직접 이용한 뒤 이벤트 참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 공식계정이 있는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중 한 매체에 접속해 팔로우와 공유를 선택한 뒤 맛집 인증 사진을 게시한다. 이어 SNS에 게시한 모습을 캡처해 이벤트 참여 게시판(네이버 폼)에 제출하고



이벤트 참여 완료 댓글을 달면 된다.

장성군은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농협 농촌사랑상품권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16일 "엘로우시티 장성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하고자 SNS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의료원, 노사화합 모범직장 거듭난다

적자 탈피 2년 연속 흑자 기대

3년간 노동쟁의 없는 직장 주목

강진의료원이 누적적자와 체불임금을 딛고 최근 3년 동안 노동쟁의 없는 노사화합 모범직장으로 거듭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전국 37개 의료원 중 중상위 그룹인 B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10~20억원에 달하는 적자 경영에서 의료원 및 직원들의 헌신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 처음으로 흑자 체제로 전환했다. 나아가 2년 연속 흑자경영도 기대된다.

2016년부터 누적돼 온 체불임금 18억원도 흑자

전환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모두 해소했다.

이에 따라 강진의료원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지역의료 여건을 반영한 진료과 특성과 전략 및 의료원 수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올해 의료원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어졌다"며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성료

함평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은 지역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 8월 개강해 4개월간 매주 1회 운영됐으며 수어와 스마트기기 활용법부터 공예 등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 등 5개 기관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생에게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